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5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18일 (음력 12월 13일) 금요일

광주 황룡강 철새도래지 AI 차단방역 '안간힘'



17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산동 황룡강 일대에서 구청과 축협 직원들이 AI 바이러스 차단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방역작업은 강가에서 채집한 철새 분변시료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AI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송산동 황룡강 일대에서는 구청 축산관리팀 직원 6명과 축협 직원 2명이 차단방역을 벌이고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일대에서 채집한 철새 분변시료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전날 발표함에 따른 조치다.

이들은 일체형 방역복을 갖춰 입고 장화를 신었다. 이어 소독제를 살포하는 차량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방역 차량 너머로 자막잡히는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가 보였다.

강변 2km구간에 3시간 동안 생석회 · 소독액 살포 전날 AI 바이러스 검출...고병원성 여부 곧 판명

수심이 낮은 강 곳곳에 모습을 드러낸 모래톱과 자갈 주변에는 철새들이 무리지어 앉아 있었다. 구청 직원들은 각각 20kg짜리 생석회 포대를 들고서 강가 갈대밭과 수변공원 주변에 뿌렸다.

한 직원은 흘날리는 석회가루에도 재채기를 참으며 빠른 속도로 포대를 비웠다. 생석회는 고열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살균해 AI 방역에 흔히 사용된다. 1000L 소독액 탱크를 실은 방역 차량 2대는 강 양쪽 이면도로를 오가며 소독액을 강변에 살포했다.

방역 차량은 분사구 방향과 각도, 분사 속도를 바꿔가며 1분당 소독액 10~20L를 고르게 뿌렸다.

소독액은 알칼리성 소독제 1kg과 물 1000L를 희석한 것으로 바이러스를 살균하고 철새 이동에 따른 확산 위험을 줄인다.

다만 소독액은 수질오염 우려 때문에 저농도 액체 상태에서 수차례로 나눠 살포된다.

소독액을 모두 쓴 방역 차량은 10분 거리에 있는 119안전센터로 이동, 급수지원을 받았다.

받아온 물에 소독제를 탄 소독액이 방역 차량 탱크에 채워지면 작업이 재개됐다.

방역 작업 3시간 동안 차량 2대가 소독액을 2차례 다시 채우며 강 2km구간 양안을 3바퀴씩 돌았다.

이날 방역작업에서 살포된 소독액은 총 6000L. 작업자가 일일이 뿌린 생석회는 400kg이었다.

이상윤 광산구청 축산관리팀장은 "철새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출현하기 시작했다. 따뜻한 날씨가 탓인지 옮겨올 유난히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철새 AI 방역은 모래톱, 갈대밭까지 인력·장비가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더욱이 광범한 구역에서 철새가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방역대상지를 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주어진 인력과 장비로 방역효과를 극대화해 AI확산을 막겠다"면서 "이르면 19일께 나올 것으로 보이는 최종조사결과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저병원성으로 판정받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지난 16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류류 예방지역'으로 정하고 21일 동안 해당 지역에 가금·사육조류 이동 통제와 소독 조치를 내렸다.

임형택 기자



정치 초년생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정계 진출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당 안팎에서는 황 전 총리가 당 대표직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피니우스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성인 500명을 상대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로 조사한 결과 황 전 총리 정계진출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00명(매우 반대 33.3%, 반대하는 편 16.7%)였다.

지지 응답은 37.7%(매우 지지 17.2%, 지지하는 편 20.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2.3%였다. 출처: 리얼미터,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지지하는 법정보·여권 응답자들은 반대 74.7%, 지지 13.6%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광주소방 심정지환자 소생률 2년 연속 1위

자발순환 회복률 16.3%...전국평균 10.8% 웃돌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7일 소방청 주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 평가에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다.

'자발순환 회복률'은 119신고와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심장이 멈춘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심장이 되살아난 비율이다.

지난해 광주 119구급대원은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 465명 중 76명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은 16.3%로 전국 평균 10.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김조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심정지 환자는 초기 목격자의 빠른 신고와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환자 발생 시 침착하게 신고하고 119상황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람의 마음을 스마트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1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2 가드레일 밖 우선대피



3 사고신고 1588-2504

사람이 우선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